

# KDC 제4판과 DDC 제21판의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의 비교분석

배영환 (Young-Hwal Bae)\*

오동근 (Dong-Geun Oh)\*\*

## 초 록

이 연구는 특정 주제 분야를 사회학적 관련 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 있는 문헌의 분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듀이십진분류법(DDC)의 특수사회학 분류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을 종교, 예·체능, 과학, 언어, 사회, 지역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분류항목 설정이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분류항목이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의 이론 및 기법 적용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추가의 항목 전개 등 분류 실무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한편 나아가 KDC의 제5판 개정에도 일조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lasses in the major special areas in the sociology, called "branch sociology" included i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4th edition an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Especially it analyzes the related classes of specified areas(branch sociology) of sociology including those of arts and sports, sciences, languages, society, region, etc. class by class. In this analysis two systems show many differences in the classes included and in the locations of same classes. This analysis can be useful for the future revision of KDC.

키워드 : 듀이십진분류법, 한국십진분류법, 문헌분류, 사회학분류  
Branch sociology, DDC, KDC

---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논문 접수일 : 2002. 11. 1

논문 확정일 : 2002. 12.5

## 1. 서론

### 1.1 연구목적

문헌분류 실무자들이 실제 분류작업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경우의 하나는 특정 주제의 이론 및 기법, 응용 등을 다루고 있는 문헌을 분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분류기호가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문헌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분류자의 인식이나 문헌 내용의 관점, 접근 방식에 따라 동일한 서명이라 할지라도 상이한 문헌분류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문헌분류표상의 분류번호 이치와 새로운 주제의 미설정 등으로 인한 동일 주제 혹은 내용의 문헌이 분산되는 경우는 문헌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인간의 사회적 공동 생활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응용분야는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특히 정치활동, 경제관계, 종교현상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는 각종 특수사회학 관련 이론 및 기법을 적용한 문헌분류는 문헌분류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도서관에서 동일한 분류표를 사용하는 경우조차 서양서 분류와 이를 번역한 문헌의 분류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특정 주제 분야를 사회학적 관련 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고찰하고 있는 문헌의 분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라 약칭함)과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라 약칭함)의 사회학 관련 이론 및 기법의 분류항목 가운데 특정 주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특수사회학(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1996, 제14권)<sup>1)</sup>의 분류항목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사회학에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 부여하기 위한 항목 전개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분류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KDC의 개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한계

이 연구는 사회학의 내용 가운데 가족, 집단, 개인의 행동, 커뮤니케이션, 사회변동, 사회집단, 사회조사, 사회문제 등과 같은 미시적 사회 현상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특정 주제에 응용된 특수사회학에 해당하는 분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야의 대상은 사회학의 학문적 체계에 따른 연구영역(윤근섭 2000, 24-27)과 국내 대학의 사회학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회학의 학문적 체계에 나타난 사회학의 분과 학문 조사와 함께 국내 대학교 사회학과 의 교과과정에 나타나는 교과목 명칭을 조사하여 특수사회학에 해당하는 분야인 경제사회학을 비롯해 모두 23개를 선정하였다.

1) 분과사회학(分科社會學:branch sociology)이라고도 한다. 사회 일반을 연구하는 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학에 있어 사회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특정부분의 분석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종합사회학과 특수과학적 사회학의 두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 두산동아, 1996. p. 142).

또한 사회학 분야의 분류표 분석은 국내 각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헌분류표인 DDC와 KDC에 설정된 특수사회학 분류항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KDC는 초판에서 최신판인 제4판까지 그리고 DDC는 제16판에서 최신판인 제21판까지의 사회학 관련주제의 분류항목 발전과정과 사회학 관련주제 분류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 현장에서의 문헌분류 확인을 위해 DDC와 KDC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의 대학 도서관의 소장 문헌을 대상으로 특수사회학 분야의 문헌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문헌 분류 확인은 먼저 특수사회학 분야의 분류번호 불일치와 원서 및 번역서간의 문헌 분류 대조 그리고 특수사회학 분야 가운데 분류항목 미설정 분야의 문헌 분류 처리 등의 순서로 살펴 보고자 한다.

## 2. 사회학의 발전과정 및 체계

### 2.1 사회학의 발전과정

사회학이라는 학문 이름은 1839년 프랑스의 Auguste Comte에 의해 처음으로 붙여졌다(고영복, 한균자 1993). 초기의 사회학은 사회와 개인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문화와 퍼스널리티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등 그 내실도 갖추었으며, 또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사회학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특히 제2차 대전 후 기존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지식만으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사회학의 역할 재인식과 함께 당대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사회학은 다양한 사회 현상 및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는 학문으로, 나라마다 발전의 속도가 다르고 강조의 초점이 다르며, 방법론에도 차이가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연구자들의 개인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와 변화에 따라 거시적 사회현상에서 미시적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접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관심 및 방법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영역의 대상과 구분이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2 사회학의 체계

사회학(sociology)은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한 분과 학문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공동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생활은 광범위하고 또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학의 연구 영역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학은 그 인접 과학으로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역사학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이러한 사회학의 세부 분야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차 각기 독립된 개별 과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학의 연구 영역을 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사회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윤근섭 2000).

<표 1> 사회학의 연구 대상 및 분과 영역

차 원	연구 대상	분 과 영 역
사회학적 분석	인간문화와 사회 사회학적 조망 사회과학의 방법	사회인류학, 문화인류학 사회학이론, 사회사상사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	개인의 인성, 사회적 행동 집단, 결사체, 조직 계급 지역사회 인구	사회심리학 사회조직론 사회계급론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인구론
사회제도	가족과 친족 경제 정치, 법 종교 교육, 과학 복지, 오락 미와 표현	가족사회학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법사회학 종교사회학 교육사회학, 과학사회학 복지사회학 예술사회학
기본적인 사회 과정	분화와 계층 합동, 수용, 동화 사회적 갈등 커뮤니케이션 사회화 사회적 평가 사회적 통제 사회적 일탈 사회 변동	사회계층론 사회과정론 집합행동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사회심리학 가치론, 지식사회학 사회통제론 사회일탈론, 범죄사회학 사회변동론

한편 E. Durkheim은 사회학의 체계를 ① 사회형태학, ② 사회생리학, ③ 일반사회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형태학은 사회의 '존재방식'의 연구 즉 사회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민족의 지리적 기초의 연구 및 인구의 양, 밀도, 분포의 연구이고, 사회생리학은 이러한 토지와 인구를 기초로 하여 종교, 법, 경제, 언어, 예술 등 사회의 '행위방식'의 연구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사회학은 보편화된 인식을 목적(木幡順三 1993)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사회학 체계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학 분야를 제외한 사회생리학 분야에 해당하는 특수사회학의 영역을 일정한 순서 없이 그 학문적 개념과 연구분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은 종교와 사회구조 및 종교와 사회과정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일반사회학 보다 역사가 더 오래 되었으나 종교의 사회학적 연구 자체는 뒤지고 있다. 최근 종교사회학은 서구 종교만을 다루어오던 데서 벗어나 비서구 종교를 다룸으로써 그 관심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동시에 제도적 종교와 함께 비제도적 종교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등 이전보다 확대된 영역들을 강조하고 있다.(진영석 1998)

예술사회학(sociology of art)은 예술현상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그 본질이나 법칙을 사회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예술의 사회적 연구는 1970년대 미국사회에서 사회학으로부터 성장하여 비록 사회학 분야에서 후진성을 보였으나, 예술을 사회현상으로 보는 입장이 점차 형성되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에 예술작품 중심에서 예술가와 예술대중까지 포함되면서 최근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사회학 분야에서 점차 인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예술사회학은 예술과 예술세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줄버그 2000)과 예술사회학은 사회학이며, 사회학 분야의 지식 확대에 공헌하여야 함(木幡順三 1993)을 강조하는 등 아직까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음악사회학은 음악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 안에서 생존하며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를 형성시키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음악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T. W. Adorno는 음악사회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와 사회구조에서 음악의 효용가치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하면서, 음악에 대한 행위적 유형들, 경음악, 기능, 계급과 계층, 오페라, 실내음악, 음악생활, 민속, 현대음악, 음악매체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들고 있다(함희주 1991, 29-41).

한편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스포츠사회학(sociology of sport)과 체육사회학(sociology of physical education)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살펴보면, 먼저 체육사회학은 체육을 신체의 교육으로 보고 체육사회학은 교육사회학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학, 사회학, 체육학의 중간적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에 스포츠사회학은 체육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체육사회학은 스포츠사회학의 한 부분이 되며 체육사회학은 사회학의 특수분야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사회학의 범주내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처럼 양자는 개념에서 혼란이 있으며,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스포츠사회학이 체육사회학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강복창 2001, 17-23).

문화사회학(sociology of culture)은 1920년대 독일에서 중심이 되어 제창하였다. M Scheler는 사회학의 체계를 마르크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의 형식에 따라 종족, 권력, 경제 등 하부구조를 연구하는 부분을 현실사회학이라 하고, 종교, 철학, 과학, 예술 등 주로 정신적 부분을 다루는 것이 문화사회학이라고 하였다. 또한 Franz Zwilgmeyer는 문화사회학을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과 동위의 학문으로 보고, 문화사회학을 보다 세분하여 종교사회학, 언어사회학, 교육사회학으로 열거하고 있다(木幡順三 1993).

법사회학(sociology of law)은 법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적 경험과학으로, 법 또는 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법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 법의 규범적 측면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의 하나로 연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법에 관한 여러 경험과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로 볼 때, 법사회학이라기 보다는 법의 사회과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과 사회 연구’(law and society study)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양건 2000, 15-26).

정치사회학(political sociology)은 정치적 현상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현상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세까지는 사회학과 정치학의 한계가 모호하였으나 19세기 후반부터 점차 체계화 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정치사회학과 정치학의 교착이 두드러지게 진전되어, 양자를 동의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말부터 정치사회학을 정치학과 사회학의 학제적 혼성물로 보는 관점과 구성적으로

임한다는 관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정치사회학은 하나의 전환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학은 정치의 사회적 기원, 정치구조나 정치과정 그리고 주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치적 영향 등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 인접학문으로 정치경제학과 정치인류학이 있다(나창주 1992, 16-17).

언어사회학(linguistic sociology)은 언어현상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관련 있는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은 언어를 사회적 요인과 관련지어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사용을 조사, 분석하여 언어 변이와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역사가 매우 짧은 사회학과 언어학의 학제적 결합 분야이다. 그러나 사회언어학과 언어사회학의 구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두 명칭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학자가 다루는 언어사회학이든 언어학자가 다루는 사회언어학이든 모두 사회언어학이란 이름 밑에 묶일 수 있다는 뜻이며, 사회언어학의 영역에 그 두 영역이 다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익섭 2000, 23-28).

경제사회학은 사회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경제사회 과정과 관련된 다른 사회과학과도 학문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학 이외에도 경제문제를 다루는 사회학의 부분 영역으로 시장사회학, 경영사회학, 산업사회학, 노동사회학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경제사회학이 경제현상을 지향하는 모든 특수사회학의 상위 개념인가라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처럼 경제사회학과 그 인접 학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방법론적 관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이남복 1996, 3-17).

산업사회학(industrial sociology)은 산업사회에서의 직장 및 경영·노동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성립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사회학은 산업화와 사회변동·문화변동으로 연구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산업사회학의 연구영역으로는 인간관계, 관리자의 리더십 등 경영조직적인 면과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조직·제도·행동양식 및 노사관계 등 노동조직적인 면, 산업과 사회와의 관련, 산업화 등이 있다.

노동사회학(sociology of labor)은 노동현상을 통하여 계급 및 집단으로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구명하는 사회학으로, 경제사회학과 부분적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학적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과 더불어 교육학의 3대 기초학문이다. 그런데 교육사회학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교육의 사회학’이라 불리는 sociology of education의 접근 방법과 ‘교육적 사회학’이라 불리는 ‘educational sociology’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둘 다 교육사회학이라 부르고 있다. 전자의 교육의 사회학은 교육을 하나의 사회제도로 연구하고 있으므로 사회학의 분과로 보고 있고, 후자의 교육적 사회학은 교육적 화제나 문제들을 사회학적 견지에서 연구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의 분과로 보고 있다(김선호, 김정환 1995). 이처럼 교육사회학은 접근방법에서 사회학과 교육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양 접근방법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과학사회학(sociology of science)은 과학의 사회학적 측면 즉 과학과 과학자, 과학공동체, 과학의 제도화, 과학정책을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하나의 사회학적 전문 분야로서 과학사회학의 성장기간은 매우 짧으며, 초기에는 지식사회학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최근 과학사회학의 연구는 과학의 사회적 구조 연구와 과학적 지식의 사회학적 연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머튼 1998, 1047-1059).

환경사회학(environmental sociology)은 인간의 삶과 환경의 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1920년대 사회학에서 출현한 인간생태학이 그 효시이다. 1950년대 와서 인간생태학은 초기의 이론들이 수정, 보완되면서 사회생태학으로 불리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이론연구를 중지하고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의 활동 공간 유형화에 치중하면서 요인생태학으로 불렸다. 이후 조직생태학을 거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사회생태론이 도입되면서 오늘날 환경사회학의 틀을 이루었는데, 주요 연구분야로는 인공환경의 본질, 환경문제 대응책, 환경영향 평가방법론, 환경의 위협, 환경용량, 환경과 사회변동 등이 있다(정대연 2002).

이 연구는 이상의 사회학 체계에서 사회학의 연구대상 및 분과영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E. Durkheim의 사회생리학 중심으로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 분석하고자 한다.

### 3. KDC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 분석

#### 3.1 변천과정분석(KDC 초판-제4판)

KDC 초판에서 제4판까지의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의 내용과 발전과정을 요약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KDC 초-제4판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 비교

내 용 \ 판 차	초판(1964)	제2판 (1966)	제3판 (1980)	제4판 (1996)
경제사회학	--	--	--	--
과학사회학	--	--	--	--
교육사회학	370.13	370.13	370.13	370.13
국방사회학	--	--	--	390.133
국어사회학	710.13	710.13	710.13	710.13
기독교사회학	--	--	--	235.8
노동사회학	--	--	336	336
농촌사회학	331.43	331.43	331.43	331.43
도시사회학	331.47	331.47	331.47	331.47
문화사회학	331.5	331.5	331.5	331.5
미술사회학	--	--	--	601.3
범죄사회학	364.47	364.47	364.47	364.47
법사회학	360.13	360.13	360.13	360.13
불교사회학	--	--	--	225.8
산업사회학	--	--	--	--
언어사회학	700.3	700.3	700.3	701.03
예술사회학	--	--	601.3	600.13
의료사회학	--	--	--	--
음악사회학	--	--	670.13	670.13
정치사회학	--	--	--	--
종교사회학	201.3	201.3	210.4	215.8
체육사회학	692.3	692.3	692.3	692.3
환경사회학	--	--	--	--

### 3.1.1 초판 및 제2판

1964년에 발행된 KDC 초판에는 특수사회학 분류항목으로 교육사회학을 비롯해 모두 10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문화사회학 세 분류항목은 330 사회학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교육사회학은 370 교육학 아래에, 언어사회학은 700 언어 아래에 각각 설정되어 있듯이 다른 특수사회학 모두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 1966년에 발행된 제2판은 초판과 동일하다.

### 3.1.2 제3판

1980년에 발행된 KDC 제3판에는 새롭게 출현한 주제 및 개념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 실례로 300 사회과학류에서 노동사회학, 600 예술류에서 예술사회학, 음악사회학 등의 분류항목이 새로이 설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 가운데 종교사회학이 201.3에서 210.4로 이치되었다

### 3.1.3 제4판

1996년에 발행된 KDC 제4판에는 보다 세분된 주제의 특수사회학 분류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 실례로 200 종교류에서 기독교사회학, 불교사회학 등 2개, 300 사회과학류에서 국방사회학 1개 그리고 600 예술류에서 미술사회학 1개 모두 4개의 항목이 새로이 설정되어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들이 증가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KDC는 문헌분류표를 개정할 때 마다 사회현상의 발전과 분화로 인한 관련 주제의 학문적 발전에 부응하여 특수사회학 관련 항목들을 새로이 계속 추가하고 있다. 즉 390 국방, 군사학 아래에 국방사회학을, 600 예술 아래에 미술사회학을, 230 기독교 아래에 기독교사회학을 그리고 220 불교 아래에 불교사회학을 각각 설정하는 등 새로운 특수사회학 관련 항목들을 신설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 해당 주제 아래의 분류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 3.2 KDC 제4판의 관련항목 분석

2.2 사회학의 체계에서 고찰한 특수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을 편의상 종교, 예체능, 과학, 언어, 사회, 지역 등 모두 6개 분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2.1 종교 관련 사회학

종교 관련 사회학으로는 종교사회학, 불교사회학, 기독교사회학 등 세 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세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KDC는 종교사회학을 종교와 사회의 상호 관련 또는 종교의 사회적 부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간주하고, 210 비교종교 아래의 215.8에 설정하고 있으며, 종교와 사회, 종교와 정치, 종교와 기타 주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학은 220 불교 아래의 225.8에 설정하고 있으며, 불교와 사회, 불교와 정치, 불교와 기타 주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기독교사회학은 230 기독교 아래의 235.8에 설정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사회,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기타 주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KDC 제4판은 종교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을 모두 200 종교에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종교 관련 사회학은 해당 종교 아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특히 종교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은 서로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분류 적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 3.2.2 예체능 관련 사회학

예체능 관련 사회학으로는 예술사회학, 음악사회학, 미술사회학, 체육사회학 등 네 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네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먼저 예술사회학은 600 예술류 아래의 600.13에 예술민족학, 예술경제학 등과 함께 설정되어 있다. 미술사회학은 601 미술훈론, 미학 아래의 601.3에 미술사회학, 미술민족학, 미술경제학 등과 함께 설정되어 있다. 음악사회학은 670 음악 아래의 670.13에 설정되어 있고, 체육사회학은 692 체육학 아래의 692.3에 설정되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KDC 제4판은 예체능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을 모두 600 예술류 아래에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사회학은 모두 해당 분야 아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특히 예술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은 체육사회학을 제외하고 서로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

어, 실제 분류 적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 3.2.3 과학 관련 사회학

과학 관련 사회학으로는 과학사회학, 환경사회학, 의료사회학 등 세 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세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분야의 관심과 관련 연구 및 문헌 생산, 이용에 따른 수요 등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분류항목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2.4 언어 관련 사회학

언어 관련 사회학으로는 언어사회학, 국어사회학 두 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두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먼저 언어사회학은 701 언어학 아래의 701.03에 설정되어 있고, 국어사회학은 710 한국어 아래의 710.13에 설정되어 있다.

### 3.2.5 사회 관련 사회학

사회 관련 사회학으로는 경제사회학, 교육사회학, 국방사회학, 노동사회학, 문화사회학, 범죄사회학, 법사회학, 산업사회학, 정치사회학 등 9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교육사회학, 국방사회학, 노동사회학, 문화사회학, 법사회학, 범죄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이 설정되어 있다.

먼저 노동사회학은 330 사회학 아래 336 노동문제에 포함하고 있고, 범죄사회학은 364 형법 아래 364.47에 설정되어 있고, 법사회학은 360 법학 아래 360.13에 설정되어 있다. 문화사회학은 331 사회학 아래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등과 함께 331.5 문화, 문화과정에 두고 있다. 교육사회학은 370 교육학 아래 370.13에 설정되어 있고, 국방사회학은 390 국방, 군사학 아래 390.133에 설정해 두고 있다. 반면에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에 관한 분류항목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해당 문헌의 주제 분야에서 표준세구분의 철학 및 이론(-01)을 적용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 3.2.6 지역 관련 사회학

지역 관련 사회학으로는 지역사회학,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등 세 개 분야로 한정하였는데, KDC 제4판에는 세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먼저 지역사회학은 331 사회학 아래 331.4 인간생태학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아래에 농촌사회학은 331.43에, 도시사회학은 331.47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KDC 제4판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은 331 사회학 아래 모두 설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DC 제4판은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을 다수 설정하고 있으며, 390 국방, 군사학 아래에 ‘국방사회학’이라는 분류항목을 설정해 두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아울러 KDC 제4판은 특수사회학 관련 다수의 항목을 해당 주제 아래에 -13을 부가하여 분류항목간의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분류적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4. DDC의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분석

### 4.1 변천과정분석(DDC 제16판-제21판)

DDC의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 항목 분석은 1958년에 간행된 제16판부터 현재 최신판인 제21판까지로 하였다. 이는 KDC가 1964년 초판을 편찬할 때 당시에 참고한 DDC의 최신판이 제16판이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DDC 제16판부터 제21판까지의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의 항목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DDC제16-제21 판의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 비교

내용\ 판차	제16판(1958)	제17판(1965)	제18판(1971)	제19판(1979)	제20판(1989)	제21판(1996)
경제사회학	--	--	--	306.3	306.3	306.3
과학사회학	--	--	301.21	306.4	306.45	306.45
교육사회학	370.193	370.193	370.193	370.193	370.19	306.43
국방사회학	--	--	--	306.2	306.27	306.27
국어사회학	--	--	-	--	--	--
기독교사회학	--	--	--	--	--	--
노동사회학	--	--	--	--	306.36	306.36
농촌사회학	301.35	301.35	301.35	307.72	307.72	307.72
도시사회학	301.36	301.364	301.36	307.76	307.76	307.76
문화사회학	301.2	301.2	301.2	306	306.4	306
미술사회학	--	--	--	--	306.489	306.489
범죄사회학	--	--	--	364.2	364.2	364.2
법사회학	--	--	340.115	340.115	340.115	340.115
불교사회학	--	--	--	--	--	--
산업사회학	331.8	301.55	--	306.3	306.36	306.36
언어사회학	401.8	401	301.21	305.7	306.44	306.44
예술사회학	--	--	--	306.4	306.47	306.47
의료사회학	--	--	--	--	306.461	306.461
음악사회학	780.07	780.07	780.07	780.07	306.484	306.484
정치사회학	301.37	301.37	301.592	306.2	306.2	306.2
종교사회학	--	--	301.452	305.6	306.6	306.6
체육사회학	--	--	--	--	306.483	306.483
환경사회학	--	--	--	--	--	--

#### 4.1.1 제16판

1958년에 발행된 DDC 제16판에는 특수사회학 분류항목으로 교육사회학,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문화사회학을 비롯해 모두 8개가 설정되어 있다. DDC 제16판에는 300 사회과학류에서 301.2에 문화사회학, 301.35에 농촌사회학, 301.36에 도시사회학을, 331.8에 산업사회학을, 370.193에 교육사회학을 각각 설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400 언어류에서 401.8에 언어사회학을, 700 예술류에서 780.07에 ‘음악과 사회’라는 분류항목으로 음악사회학을 설정하고 있다. 정치사회학은 본표내의 명확한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색인에 정치 지역사회학(political areas sociology)이라는 항목으로 301.37에 설정되어 있다

#### 4.1.2 제17판

1965년에 발행된 DDC 제17판에는 특수사회학 관련 8개의 주제 항목이 제6판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300 사회과학류에서 도시사회학이 301.364로 보다 구체화 되었고, 산업사회학은 경제학 아래의 331.8에서 사회학 아래의 301.55로 이치 되었는데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색인에 항목으로만 나와 있다.

#### 4.1.3 제18판

1971년에 발행된 DDC 제18판에는 300 사회과학류에서 교육사회학 등 9개 그리고 700 예술류에서 음악사회학 1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01.21 과학사회학, 301.452 종교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이 법과 사회(law and society)라는 항목으로 340.115에 새로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전 판에서 색인 항목으로만 제시된 정치사회학은 301.37에서 301.592로 이치되면서 본표내의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었다. 과학사회학, 언어사회학,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종교사회학 등은 독립된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분류주기로 설정되어 있으며 색인에는 항목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제17판에서 색인으로만 제시된 산업사회학은 색인 항목에도 없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 가운데 언어사회학은 해당 주제인 언어학 아래의 401에서 사회학 아래의 301.21로 이치되었다.

#### 4.1.4 제19판

1979년에 발행된 DDC 제19판은 사회발전과 분화에 따라 302에서 308까지의 기존의 미사용 분류항목들을 이용하여 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이치하면서 대폭 개정되었다. DDC 제19판에는 300 사회과학류에서 경제사회학 등 14개 그리고 700 예술류에서 음악사회학 1개를 포함해 모두 15개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06.3 경제사회학, 306.2 국방사회학, 364.2 범죄사회학, 306.3 산업사회학이, 306.4 예술사회학 등 5개의 분류항목이 새로 설정되었는데, 모두 분류주기로 기술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 가운데 농촌사회학과 도시사회학은 301.35와 301.36에서 307.72와 307.76으로 그리고 언어사회학은 301.21에서 305.7로 각각 이치되었다. 그리고 문화사회학은 301.2에서 306으로, 과학사회학은 301.21에서 306.4로, 종교사회학은 301.452에서 305.6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나, 모두 분류주기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18판에서 삭제된 산업사회학이 306.3 아래의 분류주기로 다시 설정되었다.

#### 4.1.5 제20판

1989년에 발행된 DDC 제20판에는 300 사회과학류에서만 경제사회학 등 19개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새로운 분류항목을 대폭 전개하여 306.36 노동사회학, 306.47 예술사회학, 306.489 미술사회학, 306.461 의료사회학, 306.483 체육사회학 등 모두 5개의 항목이 새로이 설정되면서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들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기존의 특수사회학 관련 주제 분류항목 가운데 교육사회학은 370.19로 상향 조정되어 있으며, 산업사회학은 명확한 분류항목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306.3 아래에 경제사회학과 함께 포함주로 설정되어 있다. 과학사회학은 306.45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종교사회학은 분류번호가 305.6에서 306.6으로 변경되었고, 의료사회학은 306.461 아래 분류주기

로 설정되어 있다. 음악사회학은 제19판까지는 780 음악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가 제 20판에서는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분류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관색인에 306.484로 나타나 있다.

#### 4.1.6 제21판

1996년에 발행된 DDC 제21판에서도 사회현상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제20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이 다소 변경되었다.

DDC 제21판에는 제20판과 마찬가지로 300 사회과학류에서만 경제사회학 등 19 개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육사회학은 해당 주제인 370 교육학 아래의 370.19에서 사회학 분야인 306.43으로 변경되었다(Scott 1998). 또한 제18판에서 법과사회라는 항목으로 처음 설정된 340.115 법사회학은 제21 판까지 해당 주제 아래에서 동일한 분류번호로 계속되고 있다.

## 4.2 DDC 제21판의 관련항목 분석

DDC 제21판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현상의 기술 및 분석이며, 사회적 현상에 관한 문헌은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정치 혹은 경제적 관습에 관한 연구라 할지라도 분류번호 301-307에 분류한다”(Dewey 1996, vol.4)고 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DDC 제21판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주제 항목분석도 KDC 제4판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주제 항목분석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회학 분야를 종교, 예체능, 과학, 언어, 사회, 지역 등 모두 6개 분야로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2.1 종교 관련 사회학

DDC 제21판은 종교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을 200 종교류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서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6에 설정하고 하고 있다. 다만 200 종교류에서는 261과 291.17 ‘사회신학 및 다른 종교간의 관계와 태도’ 아래에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와 학문, 정치, 사회경제적 문제 등 사회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회학도 294.3 불교 아래 294.33에서 특수주제구분을 적용하여 291.17 아래에 세분된 불교와 학문, 정치, 사회경제적 문제 등의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 4.2.2 예체능 관련 사회학

DDC 제21판은 예체능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을 700 예술류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 설정하고 있다. 먼저 예술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7에 설정하고 있고, 음악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84에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설정되어 있지만, 306.47 보다는 306.489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83에 설정되어 있다. DDC의 이러한 관점은 아마도 1970년대를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예술의 사회적 연구가 발전하면서,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 인식을 얻어 예술사회학이 사회학으로부터 성장한 배경에 있는 것(졸버그 2000)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DDC 제21 판은 예체능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들을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하기 보다는 모두 306 문화 및 관습 아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 4.2.3 과학 관련 사회학

DDC 제21판은 과학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을 순수 및 응용과학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 설정하고 있다. 과학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5에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학은 명확한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료사회학도 명확한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건강사회학, 질병사회학이 '306.4 문화의 특정 양상' 아래의 한 분류항목으로 306.461에 설정되어 있으며, 의료복지문제 및 봉사는 362.1042에 분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사회학과 질병사회학은 의학 보다는 사회학 아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 4.2.4 언어 관련 사회학

DDC 제21판은 언어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을 400 어학류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 설정하고 있다. 먼저 언어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4에 설정되어 있으나, 국어사회학 분류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4.2.5 사회 관련 사회학

DDC 제21판은 사회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을 300 사회과학류 아래에 대부분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분류항목들은 해당 주제와는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특수사회학 분야를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하고 있는 분류항목으로 문화사회학은 306에 설정하고 있고, 범죄사회학은 364 범죄학 아래 364.2에 설정하고 있다. 법사회학은 명확한 분류항목은 설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340.1 법철학 및 이론 아래 340.115 '법률과 사회'라는 분류항목 아래에 사회학적 법률학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해당 주제와는 별도로 설정된 분류항목으로 노동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산업사회학과 함께 306.36에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동의 경제적인 측면은 331에 분류하고, 306.34에는 산업 갈등 및 관계의 사회학적 측면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3에 설정하고 있고, 정치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2에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3에 설정하고 있다.

한편 DDC 제21판에는 국방사회학이라는 명칭은 없고,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27 군사사회학이라는 분류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회학도 명확한 분류항목은 설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304.2 인간생태학 아래에 포함할 수 있다.

#### 4.2.6 지역 관련 사회학

지역 관련 사회학으로는 지역사회학,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등 세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DDC 제21판에는 세 분야의 분류항목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 지역사회학은 307.7 지역사회 유형 아래에 농촌사회학은 307.72에, 도시사회학은 307.76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DC 제21판은 교육사회학 등 특수사회학 분야의 분류항목을 해당 주제 분야 아래에 설정하기 보다는 306 문화 및 관습 아래의 포괄적인 사회학 아래의 분류항목으로 이치해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항목 설정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KDC 제4판과 DDC 제21판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 비교분석

### 5.1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의 비교분석

KDC 제4판과 DDC 제21판에서의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KDC 제4판과 DDC 제21판의 특수사회학 관련분류항목 비교

내용\ 분류표	KDC 제4판	DDC 제21판
경제사회학	--	306.3
과학사회학	--	306.45
교육사회학	370.13	306.43
국방사회학	390.133	306.27
국어사회학	710.13	--
기독교사회학	235.8	--
노동사회학	336	306.36
농촌사회학	331.43	307.72
도시사회학	331.47	307.76
문화사회학	331.5	306
미술사회학	601.3	306.489
범죄사회학	364.47	364.47 *
법사회학	360.13	340.115 *
불교사회학	225.8	--
산업사회학	--	306.36
언어사회학	701.03	306.44
예술사회학	600.13	306.489
의료사회학	--	306.461
음악사회학	670.13	306.484
정치사회학	--	306.2
종교사회학	215.8	306.6
체육사회학	692.3	306.483
환경사회학	--	--

\* DDC 21판에서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 가운데 해당 주제분야 아래에 설정되어 있는 분류항목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류항목 가운데 KDC 제4판은 교육사회학을 370 교육학 아래의 370.13에, 언어사회학을 701 언어학 아래의 701.03에, 예술사회학을 600 예술 아래의 600.13에 그리고 음악사회학은 670 음악 아래의 670.13에 각각 설정하고 있어, 특수사회학의 분류항목을 대부분 해당 주제 분야 아래에 설정하고 있다. 이는 KDC가 학문에 의한 분류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주제분류표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2), 이러한 분류방식은 미국의 회도서

관(Library Congress of Classification, 이하 LCC라 약칭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문헌적 근거를 기초로 한 열거식 분류표인 LCC는 교육사회학(LC189), 종교사회학(BL60), 과학사회학(Q175.4)은 해당 주제분야 아래에 각각 설정되어 있으나, 이외의 문화사회학(HM101), 경제사회학(HM35), 지역사회학(HM201), 정치사회학(HM33), 법사회학(HM34), 환경사회학(HM206), 도시사회학(HM101), 농촌사회학(HM401) 등 대부분의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은 모두 사회학(HM)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Library of Congress 1988).

또한 특수사회학의 분류항목 가운데 다수가 분류번호 말미에 -013이라는 번호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 서로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분류 적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DDC 제21판은 법사회학은 340 법학 아래의 340.115에, 범죄사회학은 364 범죄학 아래의 364.25에 각각 설정하여 해당 주제분야에 특수사회학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해당 주제분야에 특수사회학 분류항목을 설정하고 있을 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 가운데 교육사회학을 비롯한 일부 특수사회학들은 해당 주제 분야 아래에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학의 포괄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다수의 분류항목들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KDC 제4판에는 DDC 제21판에 비해 경제사회학, 과학사회학, 산업사회학, 의료사회학, 정치사회학 등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문헌의 분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KDC 제4판은 언어사회학 외에도 국어사회학을 별도로 설정해 두고 있는 반면에 DDC 제21판은 언어사회학만 설정해 두고 있으며, KDC 제4판은 종교사회학 외에도 기독교사회학, 불교사회학 등 개별 종교의 사회학 관련 항목까지 설정해 두고 있어 DDC에 비해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 5.2 분류항목 차이에 따른 문제점

### 5.2.1 분류항목 설정이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DC 제4판은 특정 주제 분야의 사회학 분류항목을 대부분 해당 주제 분야 아래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DDC는 제20판까지는 특정 주제 분야의 사회학 분류항목을 대부분 해당 주제 분야 아래 설정하여 오다가 최신판인 제21판 부터는 특정 주제 분야에 그 이론이 적용된 사회학분야의 분류항목 다수를 해당 주제 분야 아래 보다는 사회학의 306 문화 및 관습 아래로 이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항목으로는 종교사회학의 분류항목을 200 종교류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서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6에 설정하고 하고 있으며, 예체능 관련 사회학의 분류항목 가운데 예술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7에, 음악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84에, 그리고 미술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설정하고 있지만, 306.47 보다는 306.489에 각각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83에 설정하고 있는 등 700 예술류 보다는 300 사회과학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산업사회학과 함께 306.36에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3에, 정치사회학은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2에, 그리고 교육사회학도 306 문화 및 관습 아래 306.43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DDC 제21판에서 이러한 분류번호의 이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즉 DDC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최근 교육사회학, 언어사회학 등 특수사회학 가

운데 일부 주제분야의 문헌분류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교육사회학 관련 문헌의 경우, 국내 문헌이든 국외 문헌이든 관계없이 그 동안 370.19에 대부분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DDC 제21판을 적용하면서 관련 국내 문헌들은 그 동안 사용하여 온 교육학 아래의 370.19를 계속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영어권 문헌들은 DDC 제21판의 분류번호 306.43을 부여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영어권 문헌 처리에 『BiblioFile Cataloging』과 같은 상용 서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분류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한 도서관내에서도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헌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를 갖게 된다.<sup>2)</sup> 그 실례로 원서와 이를 번역한 도서가 서로 다른 분류번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며, 아울러 소장자료 검색에서 분류번호로 검색할 때 교육사회학은 306.43, 예술사회학은 306.47, 언어사회학은 306.44, 정치사회학은 306.2 등을 입력하면 대다수 문헌이 서양 문헌이고, 국내 문헌은 소수 밖에 나타나지 않는 등 동일 주제의 문헌이 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류의 일반 규정에서 기본 원칙(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1997)에 상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DDC 제21판에서 306 문화와 관습 아래에 설정된 교육사회학, 정치사회학, 음악사회학, 체육사회학, 정치사회학 등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문헌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례 <Schools and societies<sup>3)</sup> ; Sociolinguistics<sup>4)</sup>>를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가운데 일부를 추출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국내 대학도서관의 특수사회학 관련 문헌의 분류기호 비교

분 야	실 례	C대학	K대학	P대학	S대학	Y대학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Schools and societies	370.193 (교육학) (DDC 20)	306.43 (사회학) (DDC 21)	370.13 (교육학) (DDC 21)	370.19 (교육학) (DDC 20)	370.13 (교육학) (KDC 3)
언어사회학 (sociolinguistics)	Sociolinguistics : an introduction	306.44 (사회학) (DDC 20)	400.1 (언어학) (DDC 21)	301.2 (사회학) 400.1 (언어학) (DDC 21)	306.44 (사회학) (DDC 20)	700.3 (원서, 번역 서 동일) (KDC 3)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사회학 관련 문헌을 C 대학도서관은 370.193, P 대학도서관은 370.13, S 대학도서관은 370.19, Y 대학도서관은 370.13으로 각각 교육학 아래에 분류하고 있고, K 대학도서관에서는 306.43으로 사회학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다음 언어사회학

2) 한 예로 DDC를 사용하고 있는 S 대학도서관의 문헌검색에서 교육사회학에 해당하는 분류번호 370.19로 검색하면 국내서와 서양서가 동시에 나타나지만, 306.43으로 검색하면 서양서 문헌만 나타난다.

3) 이 책의 정확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Schools and societies / Steven Brint. -- Thousand Oaks : Pine Forge Press, c1998. -- xviii, 349 p. : ill., maps ; 24 cm. --(Sociology for a new century). -- ISBN 0803990596

4) 이 책의 정확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Sociolinguistics ; an introduction / edited by Peter Trudgill. -- Australia : Penguin books, 1975. -- 189 p. ; 21 cm.

관련 문헌이 S 대학과 C 대학도서관은 306.44로, P 대학도서관은 400.1과 301.2 두 곳에 분류하고 있으며, K 대학도서관은 400.1에 분류하고 언어사회학 관련 문헌이 사회학과 언어학에 각각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KDC 제3판을 사용하고 있는 Y 대학도서관은 원서와 번역서 모두 700.3에 분류하고 있다.

한편 K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를 번역한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이철수 역, 범한서적, 1986>는 306.44에,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황보근 역, 문창사, 2000>는 306.44에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P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를 번역한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황보근 역<문창사, 2000>는 KDC 제4판을 적용하여 700.3에 분류함으로써 특수사회학 보다는 언어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를 번역한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이철수 역<범한서적, 1986> 700.3<KDC3판 적용>에,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황보근 역, 문창사, 2000> 701.03<KDC4판 적용>에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정 문헌 외에도 최신 문헌에서 정치사회학, 예술사회학 등 특수사회학의 유사한 문헌들은 물론 심지어 동일 문헌들도 각 대학도서관의 종합검색에서 검색하여 보면 사회학과 정치학 혹은 사회학과 예술로 분산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사회학을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인식하고, DDC 제20판 부터 관련 분류항목들을 해당 주제에서 사회학 아래로 이치하거나 새로이 설정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또한 KDC의 경우 대부분의 특수사회학을 해당 주제 아래 설정하고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 문헌분류자나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수사회학 가운데 교육사회학, 예술사회학, 언어사회학, 정치사회학 등은 해당 주제 분야 아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관련 문헌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연구자 및 학습자 대부분이 해당 주제 분야의 종사자이며, 동시에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교육사회학, 예술사회학 등은 사회학 보다는 해당 주제 분야에서 연구, 학습되고 있는 점<sup>5)</sup>들에 비추어 볼 때 DDC 제21판에 설정된 일부 특수사회학 분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 주제가 특정 주제에 적용되었든가 또는 어떠한 주제가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적용된 것은 그 특정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는 분류규정(백린 1960, Merrill 1939)의 관점에서 볼 때도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들은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5.2.2 분류항목이 설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

먼저 DDC 제21판에는 설정되어 있으나, KDC 제4판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주제 사회학으로 정치사회학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정치사회학의 문헌들을 DDC 제21판의 경우 320 정치학 아래의 정치철학 및 이론 혹은 301 사회학 이론에, 그리고 KDC 제4판의 경우 340 정치학 아래의 정치철학 및 이론 혹은 331 사회학에 대다수 분류하고는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학 관련 문헌들은 이상의 분류번호 외에 다른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DDC 제21

5) 교육사회학의 경우 대체로 교육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육과정에도 개설되어 있다. 예술사회학의 경우 계명대학교, 경희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국내 여러 대학 미술학과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판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DDC 제21판에 설정되어 있는 306.2 정치사회학 아래에도 많은 문헌들을 분류하고 있는 등 관련 문헌의 분류번호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한편 DDC 제21판과 KDC 제4판 모두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주제 사회학으로 환경사회학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제가 분류표에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주제에 가까운 주제의 분류번호를 부여(김명옥 1986)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례를 국내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가운데 일부를 추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aig R. Humphrey와 Frederick R. Buttell 공저, 환경 사회학 : 환경, 에너지, 사회<원서명 Environment, energy and society> <양종희, 이시재 공역, 서울 : 사회비평사, 1995>의 경우, DDC 혹은 KDC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에서는 환경사회학의 분류번호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DDC 제21판의 경우 304.2 인간생태학 아래에 분류하고 있으며, KDC 제4판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DDC 제21판 304.2 인간생태학에 해당하는 KDC 제4판의 331.4 인간생태학에 분류하거나 혹은 539.9 환경공학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그 실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KDC 제4판 331.4 인간생태학 아래에 대부분의 문헌을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사회학은 문헌분류표에 명확한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일 문헌간의 분류기호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주제의 자료도 관점에 따라 분산되고 있다. 따라서 KDC는 제5판 개정시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의 이론 및 기법 적용에 일관성을 기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의 항목 전개 등 분류실무자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KDC 제4판과 DDC 제21판의 특수사회학 관련 이론 및 기법의 분류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KDC 제4판은 종교, 예체능, 언어 관련의 특수사회학 분류항목들은 비교적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과학 관련 특수사회학 분야의 분류항목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학문적으로 편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KDC 제4판은 사회학 관련 다수의 항목을 해당 주제 아래에 -013 을 부가하여 분류항목간의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분류적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종교, 예체능, 언어 관련 사회학 그리고 사회 관련 사회학 가운데 노동, 교육사회학의 분류항목 설정에 있어 KDC 제4판은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DDC 제21판은 해당 주제 아래에 설정하기 보다는 모두 306 문화 및 관습 아래에 각각 설정하고 있다. 이는 문헌분류자나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의 연구 및 조사방

---

6) 최근 한국사회학회회는 ‘21세기를 대비한 한국사회학’이라는 주제 심포지엄에서 기업·환경·의료·미래·민족·과학기술·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가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윤근섭 2000)

법, 수단, 기법 등을 적용한 자료는 방법이나 기법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주제에 분류한다는 관점과도 상충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특수사회학 가운데 교육사회학, 언어사회학 등 일부 주제분야의 사회학은 해당 주제 분야 아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④ 특수사회학 관련 문헌 분류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DDC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서양 문헌은 상용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 DDC 제21판의 특수사회학 분류번호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있는 반면에, 국내 문헌은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된 문헌분류표의 분류기호를 적용하고 있어, 동일 주제의 문헌들이 수록 언어의 처리 방식에 따라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KDC 제4판은 대부분의 특수사회학 관련 분류항목을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DDC는 제20판부터 특수사회학 가운데 범사회학, 범죄사회학 등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을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고 306 문화와 관습 아래에 새로이 설정하거나 기존의 분류항목들을 이치하고 있다.

⑥ KDC는 제5판 개정시 최근의 사회현상과 학문적 발전에 따라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환경사회학 등 특정 주제의 사회학 관련 분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문헌분류자와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복창. 2001.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 태근문화사.  
 고영복, 한균자. 1993. 『사회학개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김명옥. 1986. 『자료분류법』. 서울 : 구미무역.  
 김선호, 김정환. 1995. 『교육사회학』. 서울 : 문음사.  
 나창주. 1992. 『政治社會學要論』. 서울 : 대왕사.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1996. 『두산세계백과사전』. 제14권. 서울 : 두산동아.  
 머튼, 로버트. 1998. 『과학사회학 II』. 석현호, 양종희, 정찰수 옮김. 서울 : 민음사.  
 木幡順三 1993. 예술사회학의 기초적 이해. 『예술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양건열 옮김. 서울 : 미진사.  
 백린. 1960. 분류규정(2). 『도협월보』. 1(9) : 32-36.  
 오동근. 2001. 『DDC연구』 대구 : 태일사.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2. 『KDC의 이해』 대구 : 태일사.  
 윤근섭. 2000. 『사회학의 이해』. 서울 : 삼우사.  
 이남복. 1996. 『현대경제사회학』. 청주 : 청주대학교출판부.  
 이익섭. 2000. 『사회언어학』. 개정판. 서울 : 민음사.  
 이흥탁. 1996. 『社會學原論』 제2개정증보판. 서울 : 법문사.  
 정대연. 2002. 『환경사회학』. 서울 : 아카넷.  
 줄버그, 베라. L. 2000. 『예술사회학: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사이의 가교』. 현택수 옮김. 서울 : 나남.  
 진영석. 1998. 『종교사회학』. 서울 : 백산출판사.  
 한국도서관협회. 1996.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80.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십진분류법』. 제2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십진분류법』. 초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해설편찬위원회 편. 1997. 『개정 4판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Dewey, Melvi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st ed., New York :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8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New York :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7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9th ed., New York :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7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New York :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6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7th ed., New York : Forest Press.
- Dewey, Melvil. 1958.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6th ed., New York : Forest Press.
- Merrill, William Stetson. 1939. *Code for Classifiers*. 2nd ed.,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Scott, Mona L. 1988.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1st Edition : a Study Manual and Number Building Guide*,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КСІ